

해외 한인소설에 나타난 혼종적 정체성의 발현양상

—『영원한 이방인』과 『차이나맨』의 대비를 중심으로

윤 준 민*

요약

본고에서는 해외 한인소설에 나타난 혼종적 정체성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재미작가 이창래의 『영원한 이방인』과 재호작가 돈오 김의 『차이나맨』을 대비하였다. 이창래의 『영원한 이방인』은 아시아계 유능한 스파이로 백인사회의 직능군에 편입된 한인 2세대 이민 헨리의 정체성 탐색을 통해 짚지 않은 유색 타인종 유입의 학습 경험이 축적된 미국에서 외형적·표피적 평등 속의 교묘한 차별을 감내·극복해 나가야 하는 이주민들의 동화과정을 예각적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헨리의 정체성 형성엔 존 강의 전통적 주체성 및 정치적 적극성과 아버지의 가족 사랑과 희생의 정서가 큰 영향을 미친다. 이주민과 타자 사이의 다양한 교섭으로 매개화되는 헨리의 이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은 1인칭 시점의 제한적 정보를 증충화하는 초점화자의 변용을 통해 효과적으로 구현된다. 돈오 김의 『차이나맨』은 일본계 아시아 유색인종 청년 조오가 선상에서 겪는 고뇌를 통해, 백인들만의 폐쇄사회에서 다인종 다문화사회로 전환하는 1980년대 호주 사회에서 피부색 감별에서 파생되는 노골적 인종차별을 감내해야 하는 유색 이민들이 두터운 동화의 벽 앞에서 고뇌하는 현실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소설 속에 격자화소가 삽입된 것은 3인칭 주인공 조오의 은밀하고 복잡한 내면을 일기체 회고록의 1인칭 한인 화자의 심경에 덧칠함으로써 백호주의 대륙에서 인종차별을 딛고 작품활동을 해온 작가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본고를 통해 유색인종 이민사의 도정에 따라 교묘함과 노골성으로 변별되는 두 대륙의 인종차별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서강대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주제어: 혼종적 정체성, 이창래의 『영원한 이방인』, 돈오 김의 『차이나맨』, 동화와 분화, 초점화자의 변용, 격자화소의 삽입

목차

1. 서론
2. 동화와 분화의 경계
3. 시점 변조를 통한 메시지 확장
4. 결론

1. 서론

소설이 인간세상의 화두를 깊이있게 다루는 최적의 서사양식이라 할 때, 낯선 이주지에 정착해가는 이주민의 정체성에 시종일관 주목하는 이주민 소재 소설만큼 그 본질에 충실한 장르도 없을 것이다.

정치·경제·사회적인 이유로 자신의 생래적 터전을 떠나 타국으로 옮겨온 이주민들은 “이민 직후의 들뜬 도취 상태(Initial Euphoria)”에서 “이국적 상황의 이질성에 대한 위화감과 적의의 단계(Irritation and Hostility)”와 “점차적인 조정의 단계(Gradual Adjustment)”를 거쳐 “완전적응의 단계(Adaptation)”로 들어선다는 4단계 정착과정을 밟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¹⁾ 완전적응의 단계로 돌입하기까진 결코 짧지 않은 인고의 세월이 필요할 뿐 아니라 일부는 끝내 그에 이르지 못해 좌절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자신이 출발했던 모국의 전통적 정서에 기인한 본래의 정체성과 새로운 이민지의 환경과 습속에 뿌리내려야만 하는 현실적·당위적 정체성 사이에서 겪게 되는 이민자들의 갈등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절체절명의 통과례인데 문제는 이러한 정체성 치환이 두부모 자르듯 일조

1) L, Robert Kohl, Survival Kit for Overseas Living, Intercultural press, 1979, pp.64-67.

일식에 명확하게 단번에 가지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고가 한인 작가의 이주민 소설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처럼 지난한 이주 정착과정을 이주민의 정체성이란 매우 난해하고도 복잡한 인자를 통해 절묘히 형상화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본래의 정체성을 버리고 현지인의 문화와 관습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주류 사회에의 편입에 적극성을 띠는 동화(同化;assimilation)와 본래의 정체성에 집착해 현지문화를 배척하고 타자의 전통으로 회귀하거나 현지의 부조리에 적극적으로 맞서는 분화(分化;segregation)의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이주민의 이러한 경계인적 갈등을 두 보이스(W.E.B.Du Bois)는 『흑인의 영혼』(The Souls of Black Folk, 1903)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겪는 이중적인 문화적 소속감에 빗대어 ‘이중의식’(Double Consciousness)이라 명명하고 있는데 이는 이주민 의식의 근저를 이루는 필수불가결의 요체라 할 수 있다.

호미 바바는 두 보이스의 이러한 견해를 적극적으로 차용하여, 이민지에 동화되려는 이주민의 의지와 이에 맞서는 본래적 정체성 사이의 경계적 자질을 혼종성(Hybridity)이란 개념으로 예각화한다. 정체성이란 ‘그 형성의 위치 자체가 분열의 공간이므로 항상 그 이미지와 이를 가장하는 주체의 변형의 생산물²⁾’이라는 것이다. 이는 ‘정체성’이 결코 어느 보편적 질서로 대리되어 표상될 수 없으며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위상학적으로 형성됨을 강조함으로써 결국 유동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³⁾ 즉 식민/피식민, 지배/피지배 관계가 단순한 착취나 억압/저항의 이항대립적 도식으로 나타나기보다 그 자체의 다양한 접변성으로 인해 지극히 유동적이고 분열적인 지점에서 형성되므로 새로운 질서에 편입되는 이주민의 정체성은 혼종성을 떨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주를 통해 서로 다른 두 가지 공공성을 내재시키도록 강제된

2) 호미 바바, 『문화의 위치 The Location of Culture』, 나병철 역, 소명출판, 2012, 111-113면 참조.

3) 윤준민, 『한인 이주민 서사에 나타난 혼종적 정체성과 동화의지 연구』, 서강대 국문과 석사학위 논문, 2018, 26면.

이들의 혼종적 정체성은 소위 ‘마니교적 착란’(Manichaeian delirium)⁴⁾을 띠게 마련인데 본고는 이주민의 이러한 기묘한 이중의식을 깊이있게 형상화한 해외 한인 작가의 소설 2편에 나타난 이주민의 혼종적 정체성의 양상을 인물 대립과 시점 변조의 측면에서 대비해 보고자 한다.

유아 시절(3세), 정신과 의사 아버지 손에 이끌려 미국으로 건너와 정착한 1.5세대 이주민 재미작가 이창래(1965~)⁵⁾의 『영원한 이방인』(Native Speaker, 1995)과 백호주의 시절, 콜롬보 기획 장학생으로 선발돼 한국인 으론 최초로 호주 땅을 밟은 1세대 이주민 재호작가 돈오김(1936~2013)⁶⁾의 『차이나맨』(The Chinaman, 1984)에서는 이같은 이주민의 혼종적 정체성을 섬세하고도 적나라하게 포착하고 있어 주목된다.

그간 이창래의 『영원한 이방인』은 동화와 분화의 기로에 선 이주민의 정체성에 관한 뜨거운 쟁점들을 제시해왔는데 동화주의적 관점⁷⁾, 분화주

4) 이원적으로 분열된 구조로서, 대립되는 두 항목 중 우월한 어느 하나에 의해 통합되지 않는 특성을 말한다.; “식민상황 하의 일상생활은 그 주체들의 규범적인 사회적 관계들을 매개하는 ‘착란의 성좌(constellation of delirium)’를 보여준다.” : 호미 바바, 앞의 책, 110면.

5) 한국계 미국인(교포 1.5세) 작가 이창래(1965~)는 3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민간 뒤, 예일대 영문과와 오레곤대 문예창작학과(MFA)를 졸업하고 잠시 월스트리트에서 증권분석가로 일하다 장편 『영원한 이방인』(Native Speaker, 1995)을 발표해 평단의 주목을 받았다. 연이어 『제스처 라이프』(A Gesture Life, 1999), 『가족』(Aloft, 2004), 『생존자』(Surrendered, 2010), 『만조의 바다 위에서』(On Such A Full Sea, 2014) 등을 발표해 아시아계 미국 작가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6) 1961년 콜롬보기획 장학생으로 호주 땅을 밟은, 평양 출신의 돈오김(1936~2013)은 시드니에서 사서 생활을 하며 다양한 자료를 섭렵한 후, 분단 이데올로기의 희생자가 된 자신의 체험적 신념을 보편적, 객관적 시각에서 소설화하기로 결심하여 『내 이름은 티안』(My Name is Tian; Angus and Robertson Ltd., 1969), 『암호』(Password; Angus & robertson, 1974), 『차이나맨』(The Chinaman; Hale & Iremonger, 1984) 등을 발표해 대표적 유색인종작가의 반열에 오른다.

7) 고부웅(『이창래의 『원어민』-버어있는 기표의 정체성』, 『영어영문학』 48권3호, 영어영문학회, 2002), 방정민(『이창래 소설, 『네이티브 스피커』 연구』, 『비교문학』 48호, 한국비교문학회, 2009), 이관수(『이창래 소설에 나타난 식민성 연구』, 인하대 박사학위논문, 2012), 전영의(『이창래의 <영원한 이방인>에 나타난 혼종적 욕망과 언어권력』, 『현대소설연구』 67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7) 등의 논급을 들 수 있다. 이들은 각기 트라우마적 과거, 한국문화의 단점, 오리엔탈리스트적 인식, 가족적 동화 등을 화두로 헨리의 주체성 박약을 지적한다.

의적 관점⁸⁾, 혼종적 관점⁹⁾ 등을 들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돈오김의 『차이 나맨』은 자신의 작가적 자아를 은닉한 채 아시아와 아시아인에 관한 제3 세계적 접근으로 일관해온 작가가 작중 회고록의 형식이긴 하나 한국인의 정체성을 조심스레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¹⁰⁾

- 8) 고양성·노종성(『이창래의 『네이티브 스피커』와 『제스처 인생』에 나타난 등장인물의 존재 의식과 정체성』, 『영어영문학 연구』 47권 2호 영어영문학회, 2005), 권택영(『응시로서의 『제스처 인생』-이창래와 라캉의 다문화적 윤리』, 『영어영문학』 48권1호, 영어영문학회, 2002), 김학면(『이창래 소설에 나타난 ‘고통’의 의미』, 『국제한인문학연구』 창간호, 국제한인문학회, 2004), 신정순(『미주동포소설의 주제와 기법 연구: 『동양선비 서양에 가시다』와 『네이티브 스피커』의 탈민족적 요소와 문화 혼종성을 중심으로』,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2011), 신혜정(『한 국계 미국소설에 나타난 사실과 허구의 관계: 강용홀의 『초당』, 이창래의 『네이티브 스피커』, 차학경의 『딕테』를 중심으로』, 숙명여대 대학원 영문과 박사학위 논문, 2008), 채근병(『재미 한인문학에 나타난 탈식민성 연구』- 강용홀, 김은국, 이창래의 작품을 중심으로-』, 경희대 국문과 박사학위 논문, 2014) 등은 각기 역사적 정체성 구현, 백색의 동질화에 대한 저항, 복합적 인간존재 틀 속의 타자적 시선, 말 도깨비 은유, 글쓰기 전략과 이중적 정체성 자각, 탈식민주의 핵심개념 구현 등을 근거로 분화주의적 시각을 피력한다.
- 9) 그런가 하면, 강서정(『거울의 모티프를 통한 작가적 자아성찰:메타픽션으로서 네이티브 스피커』, 『영미연구』 40권, 영미학회, 2017), 구은숙(『문화/인간 엮보기: 『네이티브 스피커』에 나타난 인생 스펠드로서의 작가』, 『현대영미소설』 7권1호, 현대영미소설학회, 2000), 김미영(『혼성적 사회에의 서사적 대응-이창래 소설의 특성 연구』, 『국어국문학』 143호, 국어국문학회, 2006), 김미현(『이창래소설의 경계사유와 혼종화 과정』, 『우리말글』 62호, 우리말글학회, 2014), 노은미(『여자가 묻고 남자가 답하다: 아내를 향한 독백으로 읽는 『원어민』』, 『영어영문학연구』 57권2호, 영어영문학회, 2015), 박선양(『경계의 디아스포라, 사이공간을 주체화하다 - 이창래의 『영원한 이방인』을 중심으로-』, 『디아스포라 연구』 11권 2호, 전남대 세계한상문화연구단, 2017), 서은경(『영원한 이방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민자의 자기배반의 삶-이창래 소설 『네이티브 스피커』를 통해서 본 'Korean-American'의 생존방식 탐구-』, 『우리어문연구』 58집, 우리어문학회, 2017), 안아람(『이창래 소설에서의 트라우마와 기억의 서사』,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2016), 이영균(『Native Speaker와 Gesture Life』에 묘사된 정체성 추구양상들』, 『현대영어영문학』 33호, 현대영어영문학회, 2015), 조규익(『바벨탑에서의 자아찾기-『네이티브 스피커』의 외연과 내포』, 『어문연구』 34권,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6) 등은 경제적 자장에 서있는 헨리의 정체성을 거울 모티프, 스페이와 글쓰기의 연동성, 서사형식의 본질, 원어민으로서의 정체성, 자서전적 주석, 문화번역의 주체, 인종적 위계의 작동방식, 트라우마로 인한 주체의 결여, 주인공 내면의 정체성 갈등, 언어장벽과 소통부재 등의 문제에 착목해 혼종성의 틀 안에서 해석하려 한다.
- 10) 돈오김의 소설 전반에 폭넓은 관심을 기울여 온 윤정현은 일련의 연구들(『한인소설에 나타

본고는 이러한 기성연구의 기초가 간과했던 혼종적 정체성의 근원적 기저를 깊이있게 천착함으로써 미국과 호주를 대표하는 두 해외 저명한 작가의 이주민 소재 소설에 나타난 이주민의 정체성이 다 같은 백인계 주류사회로의 정착이란 공통분모 아래, 대륙별로 어떻게 변별화되어¹¹⁾ 드러나는지 가능할 척도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¹²⁾

난 이주민의 정체성, 『한국문예비평연구』 21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6 & 『재의 한인 소설을 통해 본 호주대륙의 인종적 갈등양상, 『Comparative Korean Studies』 18권 3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10 & 『호주 한인소설에 나타난 이주민의 정체성 - 돈오김의 <차이나맨>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48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1 & 『돈오 김 소설의 담론적 성격, 『동북아문화연구』 38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4』을 통해, 전작들에서 비한국인의 아시아인으로 대체해 온 작가적 자아의 일단이 비로소 『차이나맨』에서 드러나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이상갑·정덕준(『재호주 작가 김동호의 소설세계,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48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0)은 『차이나맨』이 타자를 배제하는 모더니스트적 주체의 이데올로기적 폭력을 아시아인의 시각에서 심층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음에 초점을 맞추었고 권은혜(『돈오 김 소설 연구: 다문화주의 창작경향을 중심으로,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2013)는 주로 이 작품의 다문화주의적 면모에 천착하고 있다.

- 11) 유럽 청교도의 이주로 건설된 미국은 백인 위주의 이민정책을 펴오다 인종차별 요소가 포함된 ‘국가별 쿼터제’를 폐지한 1965년 이민법 개정 이후부터 유색 이민에 대한 문호를 개방했다. 1895년 하와이 노동이민으로 시작된 한인의 미국이민사는 일제강점기의 상황이 초래한 유민적 성격의 이민과 한국전쟁 후의 ‘전쟁신부’이민을 거쳐 60년대 이민법 개정이후의 경제 이민과 80년대 이후의 기술이민과 초청이민으로 이어져 왔다. (민경희, 『미국이민의 역사: 이론과 실제』, 개신, 2008, 237면) 한편 1860년대 골드러시 이후 중국인 노동자의 유이민을 막기 위해 백호주의 정책을 시행하던 호주는 1973년, 이를 폐지하고 유색이민을 받아들이는 다문화주의로 나아가게 된다. 이에 따라 한인들도 70년대에 지질학자, 헬리콥터 조종사, 교사, 요리사, 태권도 사범 등 전문기술자 위주의 이민을 시초로 다양한 계층의 이민이 이뤄져 오늘날 시드니를 비롯한 동부 연안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인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 (이용승, 『백호주의를 넘어서, 『민족연구』 1권11호, 한국민족연구원, 2003. 30-35면) 전통적으로 백인 위주의 이민정책을 펴왔던 두 나라이지만 유색이민의 역사에 있어 미국에 비해 호주가 훨씬 일천하기에 인종차별의 교묘함과 노골성에서 차이를 보인다.
- 12) 본고의 대본은 『영원한 이방인』(정영목 옮김, 나무와 숲, 2003)과 『차이나맨』(전경애 역, 보리수, 1985)을 활용하며 인용시 면수만을 적시하기로 한다.

2. 동화와 분화의 경계

1) 존 강에 투사되는 아버지의 그림자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미국사회가 요구하는 아시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민자의 이중의식을 다룬 『영원한 이방인』의 주인공 헨리는 한국계 이민 2세대로, 의뢰인의 부탁으로 타인의 비밀을 캐는 스파이직에 종사하고 있다. 헨리는 부모로부터 체득한 은둔자로서의 기질을 통해 백인사회가 요구하는 ‘착한 동양인’으로 사회화되었으나, 공작대상인 한국계 인사, 존 강의 수행원으로 잠입하여 스파이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며 느끼는 심정적 변화와 아내 릴리아와 관계개선을 도모하는 과정, 아들 밋의 죽음을 소급해 내면화하는 사유 등, 여러 하부서사의 진행과 함께 백인사회가 요구하는 ‘착한 동양인’의 상에서 벗어나 혼성적 존재로서 자아를 확립하는 주체적 인물로, 지양(止揚)적 타자의 외연에 맞닿아 있다.¹³⁾

라캉은 한 주체가 상징하는 세계인 상상계적 질서(주체의 담론)와 담론과 법의 질서에 의해 통어되는 상징계적 질서(타자의 담론)로 구분하여 욕망의 근원과 욕구 충족의 매커니즘을 설명하였고¹⁴⁾ 르네 지라르는 욕망의 문제를 주체와 대상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로 파악하지 않고 중개자가 개입한 삼각형의 가설로 인식하여 모방 욕구가 분명히 드러나는 외면적 중개와 모방 욕구가 분명히 지각되지 않는 내면적 중개로 구분하였다.¹⁵⁾ 이처럼 심리적 효과 국면이 강조되는 라캉의 ‘타자론과 인물 혹은 인물의 사회적 조건이 중시되는 르네 지라르의 ‘중개자론을 절충해 타자의 관계망을 심층화할 때, 현존 상징적 질서에서 주체에게 개입하고 주체와 관련되는 상관성에 따라 타자의 성격은 부정적 타자, 긍정적 타자, 지

13) 윤준민, 앞의 논문, 46면.

14) 강영안, 『라캉의 주체와 욕망』, 『주체는 죽었는가』, 문예출판사, 1966, 201-211면 참조.

15) 르네 지라르, 김윤식 역, 『소설의 이론』, 삼영사, 1977, 19면.

양(止揚)적 타자로 3원화된다.¹⁶⁾

즉 이민의 땅에서 이주민을 맞이하는 현지인(타자)의 자세를 이민지의 상징적 질서에 타율적으로 예측시키려는 의지와 이를 이주민이 정서적으로 파악하는 정도에 따라, 강압적 유형의 부정적 타자, 우호적 유형의 긍정적 타자, 유보적 유형의 지양(止揚)적 타자로 치환할 때, 이 같은 자장 내에서 상징계적 질서를 ‘백인 식민지배자의 시선’으로 고정함으로써 백색 이민의 땅에 연착륙하려는 유색 이주민의 본질적 정체성을 효율적으로 포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원한 이방인』에서 헨리의 직업(스파이) 설정을 상업적 제스처어로 보기도 한다.¹⁷⁾ 하지만 ‘스파이’라는 소재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미국 사회가 요구하는 아시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헨리 및 그 부모의 일생에 대한 전반적인 은유이며 아시아인의 ‘은둔자’기질에 대한 비판적 장치이다. 헨리를 떠나는 아내 릴리아의 불친절한 메모로 시작되는 소설은 이들의 이별이 전체 서사의 꽤나 중요한 추동력임에도 한동안 그에 대해 탐구하는데 이는 탐정이면서 아시아계 이민자라는 헨리의 일견 신비롭고 일견 어정쩡한, 인종과 직업에서 기인한 위장적 정체성과 무관하지 않다.

이민지의 상징계적 질서에서 볼 때 헨리를 둘러싼 대표적인 부정적 타자는 직장상사인 데니스 호글랜드이다. 헨리가 속한 사설탐정업체의 책임자인 호글랜드는 언제나 헨리로 하여금 “착한 헨리”가 되어 스파이 본연의 업무에서 성과를 거두기를 채근한다.

16) 욕망의 주체가 현존 상징적 질서를 부정할 때 현존 상징적 질서에 결합되어 현존 담론 체계나 법체계를 따르고 있거나 이를 유지 내지 강화하려는 “부정적 타자”, 이와 반대로 욕망의 주체가 상징적 질서에 집안할 때 긍정하거나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긍정적 타자”, 비록 현존 상징적 질서에 포섭되어 있기는 하지만 부정의 계기, 혹은 변화의 계기를 포함하고 있는 “지양적 타자”의 3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우찬제, 『텍스트의 수사학』, 서경대 출판부, 2005, 143-144면 참조.

17) 신혜정, 『한국계 미국소설에 나타난 사실과 허구의 관계: 강용훈의 『초당』, 이창래의 『네이티브 스피커』, 차학경의 『딕테』를 중심으로』, 숙명여대 대학원 영문과 박사학위 논문, 2008.6, 133면.

그는 일반적으로 미국인들은 첩자로는 자질이 가장 형편없다고 한탄했다. 그가 말하는 사람은 주로 백인들이었다. 아무리 체계적으로 훈련을 시켜도 그들은 쓸데없는 소리를 지껄이고, 불필요하게 자신을 과시하며, 아주 미세한 과시에서 무의식적으로 실수를 하여 극도로 예민한 첩선자가 겁을 먹고 달아나게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중략)…

호글랜드는 나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내가 중앙정보국처럼 큰 회사를 운영한다면 말이지, 자네 같은 표준적인 아시아인 가정에서 백인 아이들을 길러 요원으로 쓸 거야. 규율 훈련소인 셈이지.” (291-292면)

데니스 호글랜드는 아시아인들이 스스로를 잘 드러내지 않는 속성을 지니므로 첩보요원으로서의 활용가치가 지대하다고 믿는다. 그가 아시아인을 예찬해 마지않는 것은 긍정적 타자로서의 인간적 유대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다. 이 활용가치라는 것은 헨리가 첩자로서 훈련을 받았던 입사 초기의 일화를 통해 단적으로 제시된다.

헨리가 첩자로서의 훈련을 받던 때에 회사 내에서 가장 유능한 스파이 중 하나인 일본계 미국인 피트 아치바타의 임무를 보조하게 되는데, 이는 반정부활동을 주도하고 있던 중국인 유학생 웬 저우에 대한 공작과 관련한 것이었다. 아시아계의 또 다른 부정적 타자, 피트 아치바타는 자신의 인종적 특장을 절묘히 활용해 상징계 질서에 복무한다. 일본 일간지의 기자로 신분을 위장하여 웬 저우의 빗장을 풀고 모든 유용한 정보를 캐냄으로써 임무를 성공시킨다. 이렇듯, 아시아인으로서의 내성적 기질이 활용가치를 지니는 곳은 상대를 기만하고 배반하여 위협에 빠뜨리는 일이다. 피트 아치바타는 성공적인 배반을 수행한 데에 희열을 느꼈고, 헨리 또한 당시에는 그랬다. 그러나 아시아인의 혼종적 정체성을 무기로 같은 소수인종인 아시아인을 기만하여 백인기득권사회의 안녕을 꾀하는 일로 도구로 쓰였다는 자괴감은 헨리를 끝없이 압박한다. “좋은 스파이에게는 형제

가 없고, 자매가 없고, 아버지나 어머니도 없다”¹⁸⁾는 서술에서 확인되듯, 헨리의 내면엔 스스로의 직업이 ‘비겁한’ 일이라는 인식이 서서히 싹트고 있었던 것이다. 헨리 업체의 주요 고객은 “다국적 기업, 외국 정부 부처, 재력과 연줄이 있는 개인”들이었고, 공작 대상은 “이들의 기득권에 손해를 입히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¹⁹⁾로서 주로 아시아계(공교롭게도 헨리의 공작대상이 된 중국인 웬저우, 필리핀계의 에밀 루잔, 한국계의 존 강)였다.

헨리가 서사적 시간의 끝에서 그의 상징계적 질서로 표상되는 백인사회의 시선으로부터 탈주하여 스파이로서의 커리어를 청산하고 자기정체성의 유희에 종지부를 찍는 여정에는 또한 릴리아, 잭 등의 긍정적 타자들이 일조하고 있다.

이들 밋의 죽음으로 초래된 일시적 이별을 극복하고 헨리와 재결합하는 이태리게 백인 아내 릴리아는 아메리칸으로 둘러싸인 타자의 땅에서 헨리가 안식을 느낀 으뜸가는 긍정적 타자다.

“들어오는 순간 눈에 띄었어요.”

“내가 그렇게 불편해 보이던가요?”

“몹시.”

그녀가 말을 이었다.

“계속 타이를 잡아당기다, 결국 다시 조이더군요. 후텁지근한 교회에 들어온 어린 아이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31면)

우연한 파티에서 처음 만난 아시아계 이민 2세대의 남자에게서 ‘후텁지근한 교회에 들어온 어린 아이’의 불편을 포착해내는 섬세함과 따뜻함을 간직한 릴리아의 포용력은 장애아와 비원어민 아동을 위한 언어치료사란

18) 대본, 293면.

19) 대본, 45면.

그녀의 직업적 온기에 더하여 부유하는 헨리의 심사를 붙들어매는 청량제 구실을 한다. 이와 함께 릴리아와 재결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마다 않는 회사 동료 잭은 ‘존 강 공작’의 마지막 단계에서 그들이 무너뜨려야 할 존 강에 인간적으로 매료되어 난관에 봉착한 헨리의 위기를 해결해줌으로써 긍정적 타자로 자리잡는다.

그러나 헨리의 이민자로서의 행보와 정체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인물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존 강이다. 헨리는 비록 앵글로계통의 백인은 아니지만 미국인의 전형인 “WASP(White Anglo-Saxon Protestant)”에 최대한 근접한 모습이 되려는 부모세대의 출세 지향적 가치관을 경멸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이를 체득하여 소극적 인간, 스스로를 숨기는 윤패된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은연중에 형성하여 왔다.

이러한 헨리의 상징계적 질서에 현저한 균열이 발견되는 것은 헨리 자신의 부모와 닮았으면서도 전혀 다른 존 강을 맞닥뜨리면서부터이다. 헨리는 시장후보로 나선 한국계 인사 존 강의 비리를 탐색하도록 존 강 상대측의 의뢰를 받고 그를 들춰보다가 아버지와 유사한 구석을 발견한다. 미군 장성의 ‘하우스보이’로 미국에 와 자수성가한 존 강의 억척스러움은 헨리 박의 ‘아버지’와 많이 닮아 있다. 그러나 본인이 이룩하지 못한 주류 사회에의 ‘동화되지’를 2세인 헨리에게 전가하였던 ‘아버지’와 다르게 현지의 문화에서 ‘타자’로서의 전통적 정체성을 고수하면서도, 한국의 특수한 경제공동체인 ‘계’를 통해 한국계 이주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려는 그의 대응방식은 헨리가 사로잡혀 있던 ‘동화주의’에 신선한 충격을 준다.

자신의 혼종적인 정체성을 가두어 윤패시키고, 언제나 ‘영어 발음’에 신경을 쓰며 배경적 존재로 머물기를 자처하는 자신과 다르게, 항상 자신감에 차있고 “한국인의 모습”을 드러내는 데에 당당한 존 강의 모습은 헨리가 평소 동경해 마지않던 이상적 모습이다. 헨리처럼 백인 이민사회에 연착륙하려는 잠재적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이민 2세대의 눈에 비친 존 강의 모습은 일견 이민지의 상징계적 질서에 포섭된 듯하나, 실상 이와는

별도로 자신의 주체적 원형은 뚜렷이 간직하고 있는 지양적 타자로서의 전범이다. 이는 이민자에게 우호적이며 어찌면 동정적 시선을 보내는 일군의 긍정적 타자들보다 오히려 헨리에게는 더욱 강렬한 인상을 심어준다. 자신의 스파이 활동으로, 한인사회의 정치 참여 확대와 이를 통한 한인의 위상 강화를 도모하는 존 강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헨리가 심정적으로 그 1세대 부모의 유산인 ‘동화 지향과 ‘중간자’로서의 엄폐욕구를 과감하게 폐기하게 되는 계기는 존 강에게서 1세대 아버지의 모습이 투사됨과 동시에 스스로를 미국사회에서 은폐하고자 했던 아버지와 다른 그의 ‘정치적 적극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기성사회에서 동등한 자격으로서의 의사소통능력을 가지는 것이 곧 (경제적으로) 성공한 인생을 담보할 수 있다는 아버지의 강박이 이식된 결과로 영어에 집착했던 헨리가 “경쟁력 있는 보수”의 조사 용역 회사를 그만두고 같은 소수민족의 문제를 더 이상 중립적으로 방관하지 않는 전향적 인물로 거듭남으로써 주류의 지배를 합리화해온 언어의 종속논리에 과감히 맞서게 된 것은 성공한 이민이면서도 자신의 본래적 정체성을 숨기지 않는 존 강에 대한 이끌림 때문이다. 이는 경제적 성공을 위해 스스로의 정체성을 감추고 또 그렇게 하기를 강요한 아버지의 사랑은 간직하되 그 생존방식으로부터 결별함으로써²⁰⁾ 새로운 입지를 모색하는 헨리의 앞날을 예의 주시하게 하는 대목이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체득한 이민 2세대 헨리의 혼종적 정체성이 향후 어떻게 변모할 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이민지의 타자들과 접속하는 인간적 단초는 형성된 셈이다.

이렇게 볼 때, 이창래의 『영원한 이방인』은 아시아계 유능한 스파이로 백인사회의 직능군에 편입된 한인 2세대 이민 헨리의 정체성 탐색을 통해 짧지 않은 유색 타인종 유입의 학습 경험이 축적된 미국에서 외형적·표피적 평등 속의 교묘한 차별을 감내·극복해 나가야 하는 이주민들이

20) 외견상 아버지와 닮았으나 실상은 상반된 성향의 존 강을 통해 새롭게 정체성을 자각하는 헨리에게, 아버지는 충만한 자식사랑을 고집스럽게 실천한 애뜻한 대상으로 각인된다.

문화적·행동적 동화(자신의 문화유형을 버리고 주류사회의 문화유형을 취하는 1단계)의 단계를 넘어서 구조적 동화(문화적 동화의 수준에서 대규모로 주류사회의 파벌 혹은 기관으로 진입하는 단계)로 단계로 나아가는 지난한 도정을 예각적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²¹⁾

2) 빅의 적대감에 맞서는 죠오의 의지

대보초 해안(Great Barrier Reef)의 장엄한 풍광과 백만장자 갓프리의 호화 요트 퀴바디스호 내에서의 긴박한 인종갈등에 주목하게 하는 『차이나맨』의 문학도 출신의 일본인 기관사 죠오는 호주 대륙에 유입된 초기 동양계 이민자로서, 백호주의 대륙에서의 유색인에 대한 노골적이고 1차원적인 인종차별을 상징적으로 예각화시키는 인물이다.²²⁾

더 그로브를 출발한 퀴바디스호가 호주 동북부 퀸즐랜드주의 해안을 주유한 후, 원래의 처소로 회귀하기까지 이 배엔 술한 인물들이 상주하거나 타고 내린다. 선주 갓프리와 항해사 빅, 빅의 애인 베아트리스, 기관사 죠오같은 상주 인물 외에도, 지중해 인종인 알리 부부, 트롤어선 선장 디크와 애버러진(Aborigin; 호주 원주민) 아내 후렌, 모세즈 퍼어치에서 합류하는 다른 요트의 승객들인 헨리경, 털보음악가, 음악선생과 학생들, 손님으로 잠시 방문하는 미국인 배우 지미 캘버트 등 무수한 인물이 출몰하며 공간적 처소의 인물 범주와 층위를 다변화시킨다. 이는 배의 명칭 ‘퀴바디스’(Quo Vadis; 어디로 가시나이까?)가 은유하듯 한정된 공간 속에 인종

21) 고든(Gordon)은 *Assimilation in American Life: The Role of Race, Religion and National Origi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4)에서, 소수민족집단이 주류 백인 앵글로색슨계 집단에 동화되는 과정을 7단계(문화적·행동적 동화 - 구조적 동화 - 결혼 동화 - 정체성 동화 - 태도수용적 동화 - 수용적 동화 - 시민적 동화)로 세분화하면서 1단계의 문화적·행동적 동화까지는 가능하나 다른 유형의 동화는 종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민경희, 『미국이민의 역사, 이론과 실제』, 개신, 2008, 207-209면 참조.

22) 작품 속에서 동양계 이민 죠오의 이민력과 가족사에 대해선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적 대표성을 가진 인물들을 배합 등장시킴으로써 이 대륙의 근원적 이슈인 인종차별과 갈등의 문제가 표류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복선으로 기능하게 한다.

퀴바디스호의 항해사 역할을 하는 부동산 중개인 빅은 선주 갓프리의 추천으로 승선하게 되었는데, 유색인에 대한 비하적 편견을 신념으로 간직한 호주 백인의 전형이다. 그는 비서방계 비백인계 유색인들을 그들이 피땀 흘려 이룬 신대륙 낙원에 무임승차한 기회주의적이고 비열한 하등 인종으로 인식한다. 노골적인 인종차별을 외현화하는 부정적 타자, 빅의 행태는 유색 이주민으로 하여금 ‘동화될 수 없는 타자성’²³⁾을 각인케 하는데, 빅으로 고형화되어 드러나는 호주 백인의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의식은 미국과는 달리, 보다 유치하고 원초적인 종족 우월감과 백인간의 상호 콤플렉스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영국의 유형식민지로 건설되어 공식 건국의 역사가 채 100년이 안 된 (작품이 발표된 1984년 기준) 백호주의의 땅에 드리워진 그림자는 실상이 땅의 백인들이 스스로를 엮어맨 2류백인으로서의 열등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애초, 잉글랜드에 저항했던 아일랜드계 죄수들의 집단 이주로 개척되었던 호주 땅의 백인 후예들에게서는 자신들의 처지를 위무하고 역전시킬 치유적 명분이 필요했고 그것이 유색인에 대한 인종적 우월감으로 왜곡·치환되어 표출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특히나 1860년대 빅토리아주의 ‘골드러시’가 촉발한 중국인 노무자의 급격한 유입을 차단키 위해 시행된 유색인종 봉쇄정책인 백호주의(White Australiasm)가 1973년 선언적 종말을 고한 이래, 80년대 들어 프레이저(Fraser) 수상의 보수당 정권이 다문화주의를 주창하면서 극소수에 불과하던 유색인종의 유입이 점증하자²⁴⁾ 변두리 백인의 묘한 이중성으로 꼬인 호주 백인들은 그네들의

23) Xiaojing. Zhou, *The Ethics and Poetics of Alterity in Asian American Poetry* (Iowa: U of Iowa press, 2006) p.242.

24) 이용승, 『백호주의를 넘어서』, 『민족연구』 1권11호, 한국민족연구원, 2003, 33-34면 참조.

본향에서 상처받은 자존심을 유색 이주민에로의 갑질을 통해 회복하려 한다. 그 갑질은 유치하다 못해 순진할 만큼 노골적이고 원색적이다.

선주 갓프리가 도착해 승선하기를 기다리며 퀴바디스호의 출항 준비를 하던 죠오가 알리와 함께 더 그로브의 술집에 들렀을 때 그는 자신의 피부색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기의 대상이 되어버렸음을 알고 이연한다.

티없이 맑은 하늘을 통과한 아열대성 햇볕은, 기분 좋게, 믿을 수 없으리만큼 부드럽게 비치며 그를 재빨리 검게 태워버리는 것이었다. 그의 수영복 가장자리를 따라 허리와 허벅다리에 뚜렷한 경계선이 졌다. 어느 날 술집에서 그가 내기의 대상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45면)

그러면서 자신의 수영복을 기습적으로 끌어내려서라도 피부색을 확인하고픈 호주 백인들 앞에서 스스로 자신의 팬티를 끌어내리는 깜짝쇼를 펼쳐보인다. 이처럼 자신의 피부색에 내기를 걸며 낄낄거리는 호주 백인들의 능멸적 장난에 스스로 자신의 팬티를 끌어내리며 분기탱천하는 죠오의 다분히 도발적인 저항은 대보초 해역의 유독성 어류를 대표하는 물고기의 이름이 하필이면 ‘차이나맨’임을 인식하는 순간, 절정의 국면을 맞는다.

“죽여버려! 죽여버려! 차이나맨이라구!”

“난 당신이 차이나맨이라면 닥치는 대로 죽이고 싶어 하는지 몰랐어요.”

빅의 눈 속에 무언가 깨닫는 그림자가 스쳐갔다.

“미안하네, 죠오. 자네 그 물고기를 우연히도 차이나맨이라고 부르거든.” (99면)

조오가 잡은 정체 미상의 물고기를 보고 ‘차이나맨’이라 절규하는 빅의 실루엣은 호주 대륙의 인종적 현실을 절묘하게 치환한 수사적 그림자다. 호주사회 동양인의 혐오적 멸칭(蔑稱)인 ‘차이나맨’이 대보초 해안(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최악의 유독성 어종과 동일한 시니피앙(signifiant; 기표)을 가진다는 것²⁵⁾은 2류백인으로서의 열등감을 상쇄하고픈 호주인들의 왜곡된 보상·보복심리를 드러내는 것으로, 이 노골적 작명에 묻어있는 유색인에 대한 적의를 충분히 유추하게 한다. 인간에게 치명적인 물고기를 없애버리란 기표와 동양인을 죽여버리란 기표가 동일하게 실현되는 “호주 대륙의 인종적 현실은 이 작품의 주제와 맞닿아 깊은 공명”²⁶⁾을 일으키는 데 이는 이 작품의 주제가 ‘누구라도 인지 가능한(too recognisable) 노골적이고 1차원적인 인종차별’이란 점을 주장하는 평론가 마이클 와일딩(시드니대학 교수)의 논급²⁷⁾과 맞물리는 지점이다.

퀴바디스호가 항해하는 내내, 호주 백인의 전형인 부정적 타자, 빅의 횡포에 시달리던 조오는 사이클론이 불어닥쳐 배가 좌초된 후, 제대로 작동치 않는 ‘스타터’의 정비 문제를 두고 빅과 극렬히 충돌하며 책임 공방을 벌이는데 이는 그간 쌓였던 인종적 모욕에 의한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빅은 기관실 뚜껑을 열었다. 성급히 밑을 살펴본 그는 큰소리로 투덜댔다.

“아무 이상이 없는데 왜 저자식(스타터; 필자 주)이 말을 안 듣는 거야?”
…… 중략 ……

25) 흥분한 조오를 달래려 빅이 황급히 보여준 책엔 천연색의 그림과 함께 ‘차이나맨’이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의 유독성 물고기” 중 첫 번째로 소개되어 있다.; 돈오 김, 전경애 역, 앞의 책, 100면 참조.

26) 윤정현, 『호주한인소설에 나타난 이주민의 정체성』, 『현대소설연구』 48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1 124면.

27) Michael Wilding, *Studies in Classic Australian Fiction*, Shoestring Press, 1977, p.26.

그러나 조오는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 이말이지.”

빅이 조오에게 뇌까렸다.

“난 네가 이런 것들을 돌보러 여기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조오가 대답을 안 하자 빅이 엔진을 훑어보며 덧붙여 말했다.

“걱정할게 뭐야, 이렇게 말하고 싶겠지. 어쨌든 넌 공짜밥이나 먹고 술이나 취하면 되니까 말야.”

조오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당신은 무슨 권리로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는 겁니까?” (203면)

원인미상의 엔진 정지상태에서, 선체 기관에 무지한 빅이 무리하게 스타터를 작동시키는 바람에 ‘전지가 뒤흔들리고 충전량이 고갈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던 조오는 자신에게로 향한 빅의 적반하장식 도발을 도저히 참을 수 없어 하선하겠다는 으름장까지 놓게 된다. 이처럼 사사건건 그를 인종적으로 모욕하고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빅의 희롱에 상처받은 조오는 살인적 독침을 가진 가오리가 접근한 줄도 모르고 바다낚시에 열중한 빅을 모른 채 방치하고플 만큼 감정의 골이 깊다.

그러나 이처럼 천박하고 노골적인 호주 백인의 행태에서 이민사회의 상징계적 질서에 회의를 느끼는 조오에게 빅의 애인, 베아트리스는 언제나 빅의 횡포에 시달리는 조오의 방패막이가 되어 주며 격려어린 응원을 아끼지 않는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지요?”

베아트리스가 냉정을 되찾으며 물었다. …… 중략 ……

“이 가여운 겁쟁이 차이나맨! 가서 해결을 해요!”

“그러다 엔진을 망가뜨려 아주 못쓰게 만들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꺼져버린 것보단 나을거예요” …… 중략 ……

“최선을 다 하세요. 그게 사람의 도리 아닐까요. 그런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 마음은 평화로울 거예요.” (209-210면)

베아트리스가 읊조리는 ‘차이나맨’은 더 이상 아시아인종을 비하하는 멸칭이 아니라 좌초된 배의 기관사 조오에게 던지는 희망과 격려의 인간적 속삭임이다.²⁸⁾

부정적 타자, 빅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보다듬어 대륙 정착의 의지를 북돋게 하는 긍정적 타자가 공교롭게도 빅의 애인이란 사실은 실로 아이러니컬한데, 선주 갓프리에게 조오를 퀴바디스호의 기관사로 천거한 백인 멘토, 딘과 더불어 이들 긍정적 타자들(베아트리스, 딘)은 백인들이 장악한 일천한 역사의 이 대륙이 신호등을 무시한 일방적 폭주로 자멸하지 않도록 세심히 유색 이주민 조오를 배려한다. 특히 정신과 의사인 딘은 조오에게 동양의 은근함과 동양인의 과묵한 관용을 주문하며 이것이 백호주의의 빚장을 풀고 다문화주의로 나아가려는 호주 대륙에서의 인종적 문제 해결의 열쇠임을 강조한다.

“빅과 더 이상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퀴바디스호를 떠나야겠어요.”

“그자가 자네한테 무례하게 굴던가?”

“그 사람은 웅졸해요. 동양인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 중략

……

“조오, 그걸 피하지 말고 어떻게 받아 들이느냐 하는게 중요하잖을까? 건강은 병균을 피하는 데 있지 않고 지배하는 데 있거든.” …… 중략

……

“자네가 퀴바디스호에서 극복하지 못한 것은 시드니에서도 역시 극복하지 못할걸세.” (92면)

28) 물론 베아트리스의 목소리엔 호주사회의 인종견 편견을 헤쳐나가야 하는 돈오김의 바람이 내장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인종차별의 궁극적 대안은 감정적 직접대응이 아니라 무한한 인내를 담보로 한 자기극복의 과정임을 조오에게 상기시킨다. 어쩌면 지극히 단순한 피부색 감별로부터 초래되는 이 대륙의 일차원적 인종문제²⁹⁾가 대승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선 선입관과 편견에서 벗어나기 위한 상호간의 이해와 존중이 필요할진대 이에선 서구보다 오랜 정신사에 기반한 동양적 인내와 관용이 무엇보다 요구된다는 것이다.

베아트리스와 딘의 원호와 격려에 힘입어, 사이클론에 좌초된 퀴바디스호에 최후의 일인으로 남은 조오는 결국 침몰하고 마는 배를 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조오가 퀴바디스호 최후의 잔류자란 사실은 부상으로 후송되던 배의 설계자이자 선주인 갓프리가 퀴바디스호를 구원할 선체의 키워드를 조오에게만 귀띔한다는 상징성과 더불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한다. 향해 내내, 톱과 제리의 앙숙관계를 유지하는 빅과 조오의 대립에 무심한 듯하던 갓프리³⁰⁾가 침몰하는 자신의 배를 구할 구원자로 동양인 조오를 점찍었다는 대단원의 설정은 현재 원초적 갈등에 휩싸여 있는 호주 대륙의 인종적 미래를 조심스럽게 예단하게 한다.

백인들의 상징계적 질서에 편입하고픈 바람이 마음 한 곁에 자리하고는 있으나 그들의 정서에 동화되기엔 주체적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조오의 혼종적 정체성은 “위화감과 적의의 단계(Irritation and Hostility)”와 “점차적인 조정의 단계(Gradual Adjustment)” 사이에 위치하는 것으로 “완전적응(Adaptation)의 단계”에 이르기엔³¹⁾ 아직 요원하다. 그러나 베아트

29) 사회경제적 불평등 및 불안 지수의 증가가 인종차별적 배타성에 영향을 끼치기 마련인데, 오로지 피부색만으로 배타적 적대감을 가진다는 면에서 호주 대륙의 인종문제는 일차원적이라 할 것이다. ; 마르코 마르티니엘로, 윤진 역,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한울, 2002, 134면 참조.

30) 전혀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빅과 조오의 갈등을 관망하던 갓프리가 결정적 순간에 배의 운명을 타인종의 유색 이민자 조오에게 맡긴다는 점에서, 갓프리는 『영원한 이방인』의 존 강을 연상시키는 지양적 타자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1) 윤정현, 앞의 논문, 『현대소설연구』 48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1 128면.

리스와 딘 같은 긍정적 타자의 포용력과 암묵적 후의를 보내는 갓프리의 예지에 힘입어 호주 대륙에 정착륙하려는 조오의 희망의 끈은 실낱같게나마 남아 있다.

이렇게 볼 때, 돈오 김의 『차이나맨』은 일본계 아시아 유색인종 청년 조오가 선상에서 겪는 고뇌를 통해, 백인들만의 폐쇄사회에서 다인종 다문화사회로 전환하는 1980년대 호주 사회에서 피부색 감별에서 파생되는 노골적 인종차별을 감내해야 하는 유색 이민들이 문화적·행동적 동화³²⁾의 벽을 넘지 못한 현실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백인 사회에 정착하는 유색 이민의 적응을 다루는 두 작품을 통해 볼 때, 유색인종 유입의 학습경험에 따라 인종갈등의 결(교묘함과 노골성)이 다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정적 타자(데니스 호글랜드, 피트 아치바타)와 긍정적 타자(릴리아, 잭)의 성격 대비가 유연하며 오히려 양자를 융합한 지양적 타자(존 강)의 존재와 역할이 부상하는 『영원한 이방인』에 비해, 부정적 타자(빅)의 존재감이 압도적으로 드러나는 반면 긍정적 타자(베아트리스, 딘)의 면모가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지양적 타자(갓프리)의 존재가 극도로 미약해짐으로써 인종차별의 노골성이 감지되는 『차이나맨』은 필연적 간극을 띠게 되는 것이다.

3. 시점 변조를 통한 메시지 확장

1) 초점화자 변용을 통한 화해의 시선

사실 스퀘어 헨리의 1인칭 주인공 시점을 통해 그의 위장취업행보와 연계된 인물간의 인간관계를 펼쳐 보이는 『영원한 이방인』은 초점 화자

32) 민경희, 앞의 책, 207-209면 참조.

의 변용을 통해 제한된 정보의 유추와 확대를 시도한다. 이는 1인칭 시점의 서술로선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시점 외부에 위치한 타인의 심리적 저변 탐색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긍정적 타자인 헨리의 아내 릴리아가 이민자를 바라보는 속내가 어떠할지 적확히 파악할 수 없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소설에서, 동양인 시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는 릴리아의 심경을 묘사하는 대목은 껍이나 이채롭다.

릴리아는 곧바로 그 방에 매트리스와 바닥용 램프를 하나씩 끌고 들어가는 집의 나머지 부분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집은 어머니가 죽은 뒤 가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 어수선했다. 아버지는 가구점에 들어설 때마다 습관적으로 갖가지 가구를 샀다. 게다가 물건을 고르는 데 거의 아무런 판단력도 보여 주지 못했다. …… 중략 ……

그녀가 쓴 시 하나가 기억난다. 시아버지가 죽은 뒤 그의 집을 정리하는 여자의 이야기였다. 그녀는 시아버지의 소유물과 재산을 처리하면서 자신의 상상력에만 의존하여 가질 것과 버릴 것을 분류한다. 그녀는 집안을 돌아다니다가 시아버지의 소유물 가운데 실제로 개인적인 것, 내밀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 중략 …… 그의 인간적 존재를 말해주는 몇 가지 이야기도 있다. 여자는 그의 침실에서 노란색 낡은 레인 코트로 짙은 색 양말과 속옷을 조심스럽게 찢다. 침대 옆 탁자 서랍에서 1978년 4월에 나온 포르노 잡지 한 권, 그리고 날개 콧등 몇 개를 발견한다. 그녀는 칫솔 냄새를 맡아 본다. 페퍼민트와 먼지 냄새. 그녀는 다락방의 구두 상자 안에서 고무줄로 묶은 벽돌 크기의 20달러짜리 뭉치를 발견한다. …… 중략 …… 그녀는 시아버지의 책상에서 줄이 쳐진 공책에서 뜯어낸 색 바랜 종이 몇 장을 발견한다. 거기에는 아버지가 정하기를 했으나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미국식 이름이 뺑뺑이 적혀 있다. 조지 워싱턴 박.

아버지는 서명하는 연습을 하고 있었다. (361-362면)

소설의 공식적 화자인 ‘나’(헨리)의 시선에 의탁해 실상은 동양계 이민자 시아버지의 이민지에서의 삶의 흔적을 애잔하게 훑어냄으로써 죽은 아들은 물론 소원했던 남편과의 애뜻한 추억까지 되살려 가족적 잔상을 소환하는 릴리아의 소회를 풀어내는 이 대목은 부언할 필요도 없이 초점화자의 이동이 이뤄낸 성취다. 제라르 주네트는 일관성 있는 문맥 내에서 동떨어진 초점화에서의 변화, 즉 “문맥을 지배하는 약호의 일시적인 배반”인 변조(Alterations)는 정보의 양을 조절함으로써 유형화된다고 본 바, 특히 마땅히 생략해야 할 정보를 들먹이고 제공하는 ‘정보 더 주기’(Paralepsis)의 효과에 주목한다.³³⁾ 스파이와 비주류 이민자란 조심스럽고 내밀한 정체성을 1인칭의 서술자-초점자로 유지하며 제한된 정보들을 축적해나가던 소설이 이같은 변조(헨리의 초점에서 릴리아의 초점)를 통해 독자에게 시사하는 것은 아들에게 행복한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 자신을 지우고, 아시아 유색인으로서의 흠(흔종성)을 감추려했던 아버지의 열정과 희생이 얼마나 숭고하냐는 것이다. 그리하여 은둔자형 아버지를 은근히 경멸했던³⁴⁾, 1인칭 서술자이며 초점화자인 헨리의 고착된 관점에서선 간과될 수밖에 없었던, 따라서 헨리 자신도 미처 깨닫거나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인간적 면모를 고스란히 들춰내 되돌아보게 한다. 헨리의 시선을 빌려 릴리아는 “아무런 판단력도 보여 주지 못하고” 막무가내로 가구를 사재던 시아버지의 “칫솔 냄새를 맡아”보기도 하고, 시아버지의 침실과 구두상자, 공책을 세심한 시선으로 살피기도 한다. 헨리가 일전에 읽었던 시의 내용을 토대로 릴리아의 시선을 유추하여 묘사되는 아버지의 삶의 흔적엔 그야말로 자기 자신만을 위한 “개인적인 것, 내밀한 것”이 전혀 없다. 초점화자 릴리아의 변조된 시선을 통해 가족을 위해 자신의 삶은 송두리째 유보한 아버지의 숭고

33) 제라르 주네트, 권택영 옮김, 『서사 담론』, 교보문고, 1992, 183-185면 참조.

34) 앞장에서 언급했듯이, 헨리는 백인 주류사회 진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걸은 철저히 동화적 자세를 취했지만 속으론 본래적 정체성을 버릴 수 없었던 아버지의 은둔자적 이중성에 대해 항상 비판적 시선을 보내왔던 터이다.

한 희생을 깨닫는 순간, 헨리의 혼종적 정체성은 새로운 국면으로 내닫는다.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에 반비례해 그의 의고적 생존방식과는 결별함으로써 유색 이주민의 인권과 지위를 제고시켜야 한다는 결의를 다진다.

돌이켜 보면 나의 행동들을 매우 교과서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우아하게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는지 몰라도 어쨌든 효과는 있었다. 나는 기술을 구사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순식간에 생매장해 버렸다. 그것은 두더지들(비밀공작원을 가리키는 말- 옮긴이)의 특권이다. 미국인들은 몇 번 생을 거듭해도 배울까 말까 한 것이다. 나는 상냥한 말씨를 가진 순종형 이틀이다. 호글랜드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재능이 달리 또 어디 있겠는가? 나는 늘 착한 자원봉사자, 눈에 보이지 않는 부하의 위치로 적절하게 물러날 수 있다. 나는 언제나 그 사라짐의 순간을 포착할 줄 알았다. 더 추한 진실은 내가 오랫동안 그것을 보물처럼 여겼다는 것이다. 늘 명예롭게 보이는 그 부재.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어디에나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나는 동화된 것일까? (337면)

이미 이주민의 열등감과 직업상의 정서로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탐색·조율하던 헨리의 자평적이고 주관적인 시점에 릴리아의 외향적·관조적 시점이 보태짐으로써 헨리의 정신적 추동력은 온전히 가속화된다. 이에 따라 이민 1세대가 가진 양가적 시선의 엉거주춤에서 불편을 느끼던 2세대의 은둔자적 소극성에서 벗어나 백인사회의 공공성에 귀의하지 않고 더 많은 타자들의 존재를 방관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게 된다. 그리하여 헤어진 릴리아와의 관계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한인의 정치적 지위향상을 꾀하는 존 강의 수행원 역할에 심정적으로 몰입하며 중국엔 기득권 백인을 위한 스파이업을 접고 릴리아와 함께 소수민족의 언어교육에 투신하게 한다.

이처럼 헨리에서 릴리아에게로 초점화자 이동을 통한 변조는 1인칭 시

점으론 감당하기 힘들었던 외부 인물의 심리 묘사와 주인공 헨리 자신이 묵과했던 아버지에 대한 전향적인 인식(정보)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조는 생전 어머니의 발화를 유추함으로써 그의 부모가 추구 하였던 가치를 재구성하는 대목에서도 나타난다.³⁵⁾

늘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린다. 산 너머 산이다.

어머니는 어떤 추문이 생기기 오래 전에 존 강을 바보라고 했을 것이다. 어머니는 왜 그에게 드라이클리닝 장비를 판매해서 버는 돈 이상의 돈이 필요한지 절대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에게는 좋은 아내와 튼튼한 두 아들이 있다. 그 사람이 이 나라에서 뭘 원하나? 그런 다른 얼굴, 넓적한 얼굴로는 어느 정도까지 밖에 갈 수 없다는 것을 몰랐단 말인가? 그의 야망은 자신의 작은 가족만을 위한 일에 한정되었어야 한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아버지를 우리 민족의 가장 훌륭한 모범으로 꼽았을 것이다. 아버지가 한때는 자신의 최고의 자랑거리이자 스스로를 이는 기준이 되었던 좋은 학벌을 포기하고 마음과 정신을 정리하여 가족을 위한 삶을 살았다는 것. 어머니가 거의 매일 밤 나에게 일깨워 주었듯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이자 희생이었다. (540면)

이번에는 헨리의 시점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걸쳐지는데, 이는 이민자로서의 처지를 절감하고 성실히 분수에 맞게 가장으로서의 직분을 다해 가족을 건사한 남편에 대한 경외감으로 얼룩져 있다. 어머니의 목소리로 헨리의 시점에 주입된 메시지는 미국 사회에 동화되어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선 백인들과 부딪히지 않고 항상 ‘착한 헨리’가 되라는 간절한 바람이다. 그러나 백인사회의 배타성에서 기획된 음모의 관성에 다 자신의 배반이 한 몫 더해져 존 강이 몰락하는 과정을 지켜본 헨리는

35) 윤준민, 앞의 논문, 74면.

어머니의 목소리에 실린 부모세대의 조바심어린 집착을 오히려 거부하고 극복하려 함으로써 2세대 이주민으로서의 주체적 생존방식을 모색한다.

이처럼 이 소설이 초점화자의 변용을 통해 헨리의 정체성을 주체적으로 재구하고 있다는 사실은 ‘시민적 동화’를 목표로 은둔자적 자세를 보이던 2세대 이주민이 가치관의 전향을 이루는 중요한 계기적 단초를 독자에게 인상깊게 심어줌으로써 문화적·행동적 동화의 단계를 넘어 구조적 동화의 단계로 나아가려는 헨리의 혼종적 정체성의 실체를 요연히 파악하게 하기 위한 서술상의 장치를 부각함에 다름 아니다. 동화와 분화의 경계에서 이주민과 타자 사이의 대립과 조화로써 다양하게 매개화되는 헨리의 이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은 1인칭 시점의 제한적 정보를 중층화하는 초점화자의 이동을 통한 변조를 통해 훨씬 설득력있게 다가오게 된다.

2) 격자화소를 활용한 자아 창출

동양계 유색인종의 고단한 호주 정착과정을 그리는 『차이나맨』엔 한인 이주민 작가의 일기체 회고록 “〈소공자의 죽음〉(The Death of a Princeling)”이 이따끔씩 삽입돼 서사의 흐름을 유보시킨다. 이는 한인작가의 소설이면서도 실제 서사공간에 일절 한국인이 등장하지 않음으로써 한국인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없는 소설의 담론방식을 보완하기 위한 작가의 비책이다.

『차이나맨』의 주인공 조오는 일본인으로 설정되었기에 작가적 자아의 온전한 어조를 드러내기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작가 돈오 김에겐 백호주의의 서술이 퍼렇던 시절에 이주한 초기 유색 이주민으로서의 경험적 사회를 보다 적확하고 정치하게 담을 그릇이 필요했다. 3인칭 시점의 일본인 주인공으로선 표출할 수 없었던 초기 동양계 이주민의 내밀한 단면을 묘사할 담론적 장치로 격자화소의 일기체 회고록이 삽입하게 된 배경이다. 조오의 후견인 던으로부터 건네 받은 문제의 책, 〈소공자의 죽음〉은 한국 양반 출신의 이주민 작가가 백호주의 대륙에서 유색 동양인으로 겪

은 체험적 인종모욕을 작심하고 폭로하고 있다.³⁶⁾ 퀴바디스호에서 빅과 심각한 인종적 갈등을 빚고 있는 작중 주인공 조오가 틈틈이 이 책을 읽는 장면을 적소에 삽입하여 그의 잠재의식에 덧씌움으로써 1인칭 시점의 솔직하고 도발적이기까지 한 이 일기는 주제를 견인하기엔 더 없이 효과적이다.³⁷⁾

돈오 김의 작가적 자아가 투영된 작중 주인공인 한인 이주민 작가 ‘나’는 대륙 종단에 나서 마침내 대륙의 최북단 다윈에 이르게 되지만 타이어가 망가져 수리를 받는 과정에서 폐차장 노인으로부터 어처구니 없는 봉변을 당한다. 바가지 요금을 항의하는 ‘나’에게 폭력을 행사한 노인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난데없이 출현한 차이나맨’을 대하는 경찰의 반응은 시큰둥할 뿐이다. 그 시큰둥함은 영락없이 적반하장의 조치로 이어지는데, 노인의 일방적 진술에 편승해 ‘나’에게 정비불량 스티커를 발부한 경찰은 억울하면 고소하라고 오히려 큰소리까지 친다. 이 대륙의 3류 인종 ‘차이나맨’의 호소나 인권 따위엔 일말의 관심도 없는 호주 공권력의 처세에 전율하던 ‘나’는 내면화된 분노를 차곡차곡 소설의 자료로 쌓아 호주대륙을 종단하며 부대끼 체험들을 바탕으로 작품을 발표한다. 그리하여 마침내 비백인 아시아계 작가로선 드물게 문학상까지 받게 되지만³⁸⁾, 피부빛으로 인간을 차별하는 이 대륙의 노골적이고 원시적인 인간계측엔 결코 동

36) 또한 조오가 의도적으로 읽고 있는 호주의 아시아인의 회고록이 있다. 그 책은 참으로 능란한 솜씨이다. 그 책 속에서 인용되어지는 구절들은 호화요트인 퀴바디스호 선상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공명을 일으킨다.; Mrs. Judith Wright, 『서문』, 대본 9면.

37) 작가(돈오 김)는 자신의 독특한 내면 이야기를 재소환한다.: Joe는 현대소설의 침묵에 관한 논문을 쓰면서(돈오 김 자신의 작품을 샘플로 응용함.) 멘토 딘이 빌려준 호주의 한 아시아 작가의 자서전을 읽기도 한다. 이 책을 통해 Joe는 선내에서 호주 백인의 전형적 인종주의자 Vic의 조롱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위로받는다. (필자 역) ; C.A.Runcie, *Don'o Kim, Southerly - A Review of Australian Literature* - (Special Science & Humanity Library, 1985), p.205.

38) 1973년, 공식적으로 백호주의가 철폐되기 훨씬 이전으로 노골적 인종차별이 극심하던 시절(1961년)에 이민과 온갖 따가운 시선을 극복하고, 연방문학상을 수상하는 등, 호주의 대표적 아시아계 작가로 자리잡은 작가 돈오 김의 자전적 모델이 ‘나’임은 너무나 자명하다.

의할 수 없다. 그리하여 ‘나’는 수상 인터뷰에서 이 대륙의 인종문제를 종식시키기 위한 자신의 구상을 단호히 개진하는데 이는 매우 냉소적이고 공격적이다.

“간단히 말하면, 인종주의적 요소가 모든 이해관계, 특히 도덕적인 것에 우선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위태롭게나마 이 사회를 함께 묶어, 집단 생활체제를 가능하게 하는 도덕정신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 종략 ……

“나는 우울하였습니다. 『내 종족, 내 종족!』하고 떠들어대는 것은 별 문제가 없겠지만, 이 위축되어 가고 있는 세계에서, 내년은, 다음 세기에는 어찌잔 말입니까? 나는 인간의 지성이 아닌 속된 본능을 자극하는 외침들을 탓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의 문제로 나는 호주에서 많은 동정과 친절³⁹⁾을 받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147면)

‘인간의 지성이 아닌 속된 본능’으로 자신을 맞이했던 백호주의 대륙의 백인들에게 성공한 동양계 작가로 최소한의 발언권을 확보한 ‘나’는 “동양의 약소국을 유린하던 서구식 제국주의가 호주대륙의 인종차별로 이어져 온 역사성을 날카롭게 지적⁴⁰⁾하면서 서구의 교활하고 폭력적인 비인간적 메커니즘을 종식시키기 위한 자신의 도발적인 복안을 내세우며 사자 후를 토한다.

“「…… 서구는 동양과 함께 생존하든가 아니면 모두 함께 전멸해 버리

39) ‘나’가 피부빛으로 노골적인 인종차별이 행해지는 백호주의 대륙의 유색이민으로서 성공한 작가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조오가 단, 베아트리스와 같은 백인 긍정적 타자를 만난 것처럼 문단 내외에서 그를 후위해 준 적잖은 백인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나’를 동화와 분화의 경계에 서게 하는 요인이다.

40) 윤정현, 앞의 논문, 『현대소설연구』 48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1, 135면.

든가를 곧 결정해야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사를 읽었습니다만, 다소 과격한 논조가 아닐까요?”

“베트남 애깁니다. …… 중략 …… 그들은 이미 목숨을 걸 준비가 되어 있지요. 그리고 하노이는 극심하게 절망적인 아시아의 한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그런데 왜 아시아는 그렇게 절망적입니까? 스스로 돕고 자립할 수는 없습니까?”

“서구가 모든 것을 가져 가서, 거의 아무 것도 남겨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잘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언제까지 일까요? 일본은 벌써 유럽에서 경제적 냉혈동물로 비난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장이 위축되면 한국이나 베트남, 혹은 다른 곳에서 전쟁을 일으켜 자극을 함으로써 그들의 동업자들을 즐겁게 하겠지요. 일본인을 제외한 동양인들은 이렇게 외치고 있지요. 『우리 형제들의 피를 착취하는 것을 중지하자!』 그곳은 불안한 공기가 감돌고 위기의 식에 젖어있습니다.”

“…… 과연 무엇이 동양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 ”

“서구를 새 출발시킬 보다 더 슬기로운 영도력이죠.” …… 중략 ……

“서구는 세계를 폭력으로 다스려 왔습니다. 혹은, 노골적인, 폭력이 아니더라도 은밀한 수단 즉, 더 큰 충알을 쏘아 더 위대한 존경심을 강요하는 거대한 방어쇠를 사용했죠. …… ” …… 중략 ……

“서구를 비난하는 것입니까?”

“전세계를 오염시켰으니까요.” …… 중략 ……

“나는 사명감에서 영어로 쓰게 되었습니다.” …… 중략 ……

“어떤 종류의 사명감입니까, 미스터 리?”

“서구의 뿌리를 침식하여 죽이는 것입니다.” (148-149면)

‘나’는 모국어가 아닌 영어로 작품활동을 하는 이유를 ‘서구의 뿌리를 침식하여 죽이기’ 위해서라고 당당히 밝힌다. 즉 거리낌없이 비서구 유색

인종을 착취하고 유린해온 서구인들의 만행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그들의 언어로 낱낱이 까발리고 그림으로써 그들의 정신적 뿌리를 원천적으로 개종시키겠다는 작가적 포부를 천명한 것이다. 이는 백호주의 대륙의 초기 동양계 이민작가로서의 온갖 핸디캡을 극복하고 극적으로 반열에 오른 작가 자신의 속내를 그대로 표출한 것에 다름아니다. 동양과 동양인에 대한 당위적 우월감에 잠식되어 있는 서구(백인)세계의 오리엔탈리즘적 시각을 뿌리째 절삭하고 말겠다는 ‘나의 이같은 절규어린 다짐은 향해 내내 빅의 인종차별적 도발에 시달리며 정체성의 부침을 겪는 조오의 고뇌에 대한 위무인 동시에 어설픈 지역성에 함몰하기보다 세계인의 객관적 전달수단인 영어의 사통팔달적 위상에 기대 호주 주류 문단에 진입한 작가 돈오 김의 자기고백적 담론인 것이다.⁴¹⁾

선명 ‘퀴바디스’(Quo Vadis; 어디로 가시나이까?)로 은유되는 호주 대륙의 인종갈등의 혼효상을 일본인 주인공을 등장시켜 한인 작가가 들여다보는 이 소설에선 혼종적 정체성의 뒷에 놓인 조오의 의식의 일단을 한인 이주민 작가 ‘나의 보다 외현화된 행장에 병치시킴으로써 작가적 자아의 의지와 바람을 교묘히 피력하게 된다.

퀴바디스호에 돌아온 조오는 라운지가 텅 빈 것같이 느껴졌다. 그는 식탁에서 『소공자의 죽음』을 집어 들고 살살이 읽기 시작했다. 다음과 같은 글귀가 그의 눈을 끌었다. …… (43면)

백호주의 대륙에 정착하려는 과정에서 심각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3인칭 주인공 조오의 은밀하고 복잡한 내면은 그가 향해 중 읽으며

41) 돈오 김은 국내 인터뷰에서 영어로 작품활동을 하는 이유를 모든 언어가 아이덴티티를 가지기 마련이지만 영어는 개성이 없는 유일한 언어여서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때문이라 밝히고 있다.;김인기, 『돈오 김: 문학으로 맞서는 삶의 고독과 부자유』, 『행복이 가득한 집』, 1992년 12월호, 164면 참조.

동병상련의 공감을 일으키는 격자 형태의 1인칭 일기체 회고록에 의해 훨씬 세밀하고 직접적이며 강렬하게 독자에게 다가오게 된다.

이처럼 이 소설이 격자 형태로 삽입된 일기체 회고록의 1인칭 한인 화자를 통해 3인칭 일본인 주인공의 내면을 조망하고 있음은 동양계 이주민 작가로 호주 주류문단에 힘겹게 진입한 돈오 김의 이력과 맞물려 적잖은 의미를 시사한다. 피부빛으로 노골적 인종차별을 감행하는 백호주의 대륙에서 유색인이 문화적·행동적 동화의 벽을 넘기가 요원한 현실을 2중 시점의 변별적 화자를 통해 입체적으로 형상화한 것인 동시에 아직도 진행 중인 이 땅의 인종차별적 시선 속에 작품활동을 하는 작가의 내면이 투사된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백인 사회에 정착하는 유색이민의 혼종적 정체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두 작품은 상이한 서술기법을 구사한다. 『영원한 이방인』이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제한적 정보에 간힘으로써 이주민과 타자 사이의 다양한 교섭으로 매개화되는 헨리의 혼종적 정체성이 희석되지 않게 초점화자의 이동을 통해 시야를 확충하고 있음에 비해, 오히려 『차이나맨』은 은밀하고 복잡한 내면을 담아내기 어려운 3인칭 주인공 조오의 심사를 격자 형식(일기체 회고록)의 1인칭 한인 화자의 심경에 덧칠함으로써 유색이민의 작가적 자아를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4. 결론

본고에서는 재미 한인 작가 이창래와 재호 한인 작가 돈오 김의 두 소설, 『영원한 이방인』과 『차이나맨』에 나타난 이주민의 혼종적 정체성의 발현양상을 대비·천착한 바, 동화와 분화의 경계에서 양단의 고뇌를 겪고 있는 이주민의 자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창래의 『영원한 이방인』에 등장하는 한인 2세대 이주민 헨리는 백인

기득권의 안녕을 위해 복무하는 스파이직에 종사하며 동화의 수순을 밟아가나, 이는 아시아 유색인으로서의 흠(혼종성)을 감추고 하루 빨리 문화적·행동적 동화를 이루려는 아버지의 은닉자형 가치관을 일면 경멸하면서도 은연중에 수긍한 때문이다. 그러나 동화주의자로 비취졌던 한인 사회의 성공모델 존 강이 한국인의 전통적 주체성을 당당히 지향하며 정치적 적극성을 유지하는 모습과 아버지 사후 깨닫게 된 은닉자형의 삶 속에 묻혀 있던 자식을 위한 사랑과 희생에 영향받아, 헨리는 중간자로서의 윤희된 삶에서 나아가 보다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기로 다짐한다. 하지만 이는 동화방식의 전향적 진전일 뿐이기에 동화와 분화의 경계에 놓인 헨리의 혼종적 정체성은 여전히 변모와 진화를 거듭할 것이다.

따라서 이창래의 『영원한 이방인』은 아시아계 유능한 스파이로 백인사회의 직능군에 편입된 한인 2세대 이민 헨리의 정체성 탐색을 통해 짧지 않은 유색 타인종 유입의 학습 경험이 축적된 미국에서 외형적·표피적 평등 속의 교묘한 차별을 감내·극복해 나가야 하는 이주민들의 동화와정을 예각적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이 소설은 ‘시민적 동화’를 목표로 은둔자적 자세를 보이던 2세대 이주민 헨리가 가치관의 전향을 이루어 새로운 입지를 모색하는 계기를 요연히 파악하도록 초점화자의 이동을 통해 헨리의 정체성을 주체적으로 재구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주민과 타자 사이의 다양한 교섭으로 매개화되는 헨리의 이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은 1인칭 시점의 제한적 정보를 중층화하는 초점화자의 이동을 통한 변조를 통해 훨씬 설득력있게 다가오게 된다.

돈오 김의 『차이나맨』에 등장하는 일본인 주인공 조오는 백호주의 대륙 호주에 정착한 유색 이주민으로 대보초 해안을 향해하는 호화 요트 퀴바디스호의 기관사다. 문학도 출신의 그는 항해 내내 백인 항해사 빅의 갖은 인종차별적 도발에 시달리지만 동승한 빅의 연인 베아트리스의 다독임과 한인 이주민 작가의 회고록 탐독을 통해 버텨나간다. 백인들의 상

정계적 질서에 편입하고픈 바람이 마음 한 곁에 자리하고는 있으나 그들의 정서에 동화되기엔 주체적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조오의 혼종적 정체성은 오직 피부빛만으로 인간을 차별하는 노골적이고 1차원적인 인종 차별이 횡행하는 호주대륙 2류백인들의 콤플렉스와 연동되어 선명 ‘퀴바디스’(Quo Vadis; 어디로 가시나이까?)의 의미처럼 표류한다.

따라서 돈오 김의 『차이나맨』은 일본계 아시아 유색인종 청년 조오가 선상에서 겪는 고뇌를 통해, 백인들만의 폐쇄사회에서 다인종 다문화사회로 전환하는 1980년대 호주 사회에서 피부색 감별에서 파생되는 노골적 인종차별을 감내해야 하는 유색 이민들이 두터운 동화의 벽 앞에서 고뇌하는 현실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이 소설엔 한인 이주민 작가의 일기체 회고록 “〈소공자의 죽음〉(The Death of a Princeling)”이 격자 형태로 본문 속에 삽입돼 주목을 끄는데, 이는 백호주의 대륙에 정착하려는 과정에서 심각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3인칭 주인공 조오의 은밀하고 복잡한 내면을 일기체 회고록의 1인칭 한인 화자의 심경에 덧칠함으로써 피부빛으로 노골적 인종차별을 감행하는 백호주의 대륙에서 유색인이 동화의 벽을 넘기가 요원한 현실을 2중 시점의 변별적 화자를 통해 입체적으로 형상화함에 다름 아니다. 이는 호주대륙의 초기 유색 이민작가로서 당당히 영어로 작품활동을 하며 인종차별의 벽을 감내해온 돈오 김의 내면이 투사된 것이기도 하다.

미국과 호주 재외 한인작가의 소설 두 작품을 대비한 결과, 유색 이민의 역사가 유구한 미국과 백호주의의 빗장을 풀고 유색 이민을 받아들인 경과가 일천한 호주에서의 인종갈등의 결(교묘함과 노골성)이 다름을 알 수 있었는 바, 1인칭과 3인칭으로 내레이션되는 소설의 긴장감을 제고하기 위해 각각 초점화자의 변용과 격자화소의 삽입이란 묘수를 창출하고 있음도 주목된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돈오김, 『차이나맨』, 전경애 역, 보리수, 1985.
이창래, 『영원한 이방인』, 정영목 옮김, 나무와 숲, 2003.

2. 저서

- 강영안, 『라캉의 주체와 욕망』, 『주체는 죽었는가』, 문예출판사, 1966.
르네 지라르, 김윤식 역, 『소설의 이론』, 삼영사, 1977.
민경희, 『미국이민의 역사, 이론과 실제』, 개신, 2008.
마르코 마르티네엘로, 윤진 역,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한울, 2002.
우찬제, 『텍스트의 수사학』, 서강대 출판부, 2005.
제라르 주네트, 권택영 옮김, 『서사 담론』, 교보문고, 1992.
호미 바바, 『문화의 위치』, 나병철 역, 소명출판, 2012.
Du Bois, W.B.(n.d), *The Souls of Black Folk*, Champaign, III: Project Gutenberg, 2008.
Gordon, Milton M, *Assimilation in American Life: The Role of Race, Religion and National Origi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4.
L, Robert Kohl, *Survival Kit for Overseas Living*, Intercultural press, 1979.
Michael Wilding, *Studies in Classic Australian Fiction*, Shoestring Press, 1977.
Xiaojing, Zhou, *The Ethics and Poetics of Alterity in Asian American Poetry*, Iowa: University of Iowa press, 2006.

3. 논문 및 단평

- 강서정, 『거울의 모티프를 통한 작가적 자아성찰: 메타픽션으로서 네이티브 스피커』, 『영미연구』 40권, 한국외대영미연구소, 2017, 3-26면.
고부웅, 『이창래의 『원어민』-비어있는 기표의 정체성』, 『영어영문학』 48권3호, 한국영어영문학회, 2002, 619-638면.
고양성·노종성, 『이창래의 『네이티브 스피커』와 『제스츄어 인생』에 나타난 등장인물의 존재의식과 정체성』, 『영어영문학 연구』 47권 2호, 한국중앙영어영문학회, 2005, 143-165면.
구은숙, 『문화/인간 엮보기-『네이티브 스피커』에 나타난 인생 스피카로서의 작가』, 『현대영미소설』 7권1호, 한국현대영미소설학회, 2000, 47-63면.

- 권은혜, 『돈오 김 소설 연구: 다문화주의 창작경향을 중심으로』,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2013.
- 권택영, 『응시로서의 『제스처 인생』-이창래와 라캉의 다문화적 윤리』, 『영어영문학』 48권1호, 한국영어영문학회, 2002, 243-261면.
- 김미영, 『혼성적 사회에의 서사적 대응-이창래 소설의 특성 연구』, 『국어국문학』 143호, 국어국문학회, 2006, 379-406면.
- 김미현, 『이창래소설의 경계사유와 혼종화 과정』, 『우리말글』 62호, 우리말글학회, 2014, 335-358면.
- 김인기, 『돈오 김: 문학으로 맞서온 삶의 고독과 부자유』, 『행복이 가득한 집』, 1992.
- 김학면, 『이창래 소설에 나타난 '고통'의 의미』, 『국제한인문학연구』 창간호, 국제한인문학회, 2004, 70-99면.
- 노은미, 『여자가 묻고 남자가 답하다: 아내를 향한 독백으로 읽는 『원어민』』, 『영어영문학연구』 57권2호, 한국중앙영어영문학회, 2015, 115-134면.
- 박선양, 『경계의 디아스포라, 사이공간을 주체화하다 - 이창래의 『영원한 이방인』을 중심으로-』, 『디아스포라 연구』 11권 2호, 전남대 세계한사문화연구원, 2017, 125-160면.
- 방정민, 『이창래 소설, 『네이티브 스피커』 연구』, 『비교문학』 48호, 한국비교문학회, 2009, 135-156면.
- 서은경, 『『영원한 이방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민자의 자기배반의 삶-이창래 소설 『네이티브 스피커』를 통해서 본 'Korean-American'의 생존방식 탐구-』, 『우리어문연구』 58집, 우리어문학회, 2017, 91-122면.
- 신정순, 『미주동포소설의 주제와 기법 연구: 『동양선비 서양에 가시다』와 『네이티브 스피커』의 탈민족적 요소와 문화 혼종성을 중심으로』,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2011.
- 신혜정, 『한국계 미국소설에 나타난 사실과 허구의 관계: 강용훈의 『초당』, 이창래의 『네이티브 스피커』, 차학경의 『딕테』를 중심으로』, 숙명여대 영문과 박사학위논문, 2008.
- 안아람, 『이창래 소설에서의 트라우마와 기억의 서사』,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2016.
- 윤정현, 『한인소설에 나타난 이주민의 정체성』, 『한국문예비평연구』 21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6, 115-135면.
- _____, 『재외 한인 소설을 통해 본 호주대륙의 인종적 갈등양상』, 『Comparative Korean Studies』 18권 3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10, 403-436면.
- _____, 『호주 한인소설에 나타난 이주민의 정체성 - 돈오김의 〈차이나맨〉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48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1, 105-143면.

- _____, 『돈오 김 소설의 담론적 성격』, 『동북아문화연구』 38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4, 161-178면.
- 윤준민, 『한인 이주민 서사에 나타난 혼종적 정체성과 동화외지 연구』, 서강대 국문과 석사학위 논문, 2018.
- 이관수, 『이창래 소설에 나타난 식민성 연구』, 인하대 박사학위논문, 2012.
- 이상갑·정덕준, 『재호주 작가 김동호의 소설세계』,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48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0, 201-220면.
- 이영균, 『「Native Speaker와 Gesture Life」에 묘사된 정체성 추구양상들』, 『현대영어영문학』 33호, 현대영어영문학회, 2015.
- 이용승, 『백호주의를 넘어서』, 『민족연구』 1권11호, 한국민족연구원, 2003, 27-38면.
- 전영의, 『이창래의 〈영원한 이방인〉에 나타난 혼종적 욕망과 언어권력』, 『현대소설연구』 67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7, 121-147면.
- 조규익, 『바벨탑에서의 자아찾기-『네이티브 스피커』의 외연과 내포』, 『어문연구』 34권,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6, 161-182면.
- 채근병, 『재미한인문학에 나타난 탈식민성 연구』-강용홍, 김은국, 이창래의 작품을 중심으로-, 경희대 국문과 박사학위 논문, 2014.
- C.A.Runcie, *Don'o Kim, Southerly - A Review of Australian Literature -*, Special Science & Humanity Library, 1985.

<Abstract>

The Appearance of Hybrid Identities in Overseas Korean Novels

—Focusing on the contrast between *Native Speake*
and *The Chinaman*

Yoon, Jun-Min

In this paper, in order to grasp the reality of the hybrid identity that appeared in overseas Korean novels, I contrasted *Native Speaker* by American Korean writer Chang-rae Lee and *The Chinaman* by Australian Korean writer Dono Kim.

Chang-Rae Lee's *Native Speaker* depicts the search for the identity of Henry, a second-generation Korean immigrant who was incorporated into the white community as a competent Asian spy. Through this, it can be seen that the assimilation process of migrants who have to endure and overcome subtle discrimination in external and epidermal equality in the United States, where the learning experience of the influx of different races of color, has been accumulated is acutely embodied. John Kang's traditional identity and political activism, and family love and sentiment of sacrifice of Henry's father have a great influence on Henry's identity formation. Henry's identity as a migrant, mediated through various negotiations between migrants and others, is effectively embodied through the transformation of the focus speaker who layered the limited information from the first person perspective.

Dono Kim's *The Chinaman* can be seen as a representation of the reality that colored immigrants suffer in front of a thick wall of

assimilation through the anguish experienced by Joe, a Japanese-Asian young man of color in Australian society in the 1980s, transitioning from a closed society of whites to a multiracial and multicultural society. At that time, explicit racism, derived from skin color discrimination, was practiced. A grid motif is inserted into the novel to reveal the inner side of the artist who has been working on racism in the continent of White Australia by trapping the secret and complex inner side of the third-person protagonist Joe in the heart of the first-person Korean speaker in the diary memoir,

Through this paper, it was possible to confirm the pattern of racial discrimination on the two continents, distinguished by subtlety and blatantness according to the historical progress of immigrants of color.

Key words: Hybrid identity, Chang-Rae Lee's *Native Speaker*, Dono Kim's *The Chinaman*, Assimilation and Segregation, Transformation of the Focus Speaker, Insertion of Grid Motif

투 고 일 : 2020년 10월 26일

심 사 일 : 2020년 11월 24일-12월 10일

게재확정일 : 2020년 12월 11일

수정마감일 : 2020년 12월 26일